

보도시점 2026. 4. 15.(수) 14:00 배포 2026. 4. 15.(수) 09:00  
4. 16.(목) 조간

## 농식품부, 위기 속 K-푸드+ 수출길 넓힌다! 2026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 중동 전쟁 장기화 속 전략제품 수출, 신규·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동력 창출 목적, 45개국의 143개 바이어·279개 수출기업 참여(4.15~16)
- 수출바우처 추경(72억원)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물류·보험 등 지원 강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 K-푸드+ : 농식품(K-푸드, 신선농산물·가공식품)과 농산업 제품(+,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올해로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BKF+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된다.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 **A**ttractive authenticity(진 매력 제품 발굴 및 육성), **E**xpand global market reach(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 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5: 17.9% → '26: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5: 18.6% → '26: 21.1%)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환율·운임 상승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추경 예산 7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기업 선정 시 중동 또는 중동 경유 수출 실적,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고려할 계획이며, 물류·보험 등 중동 전쟁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이 우선 사용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BKF+를 찾은 김종구 차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는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수출상담회와 후속 온라인 상담, 샘플 운송지원 등을 통해 K-푸드와 농산업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